

평화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산 해운대 전진수 활동가

2017년 봄날, 지인의 권유로 법륜 스님의 통일특강 시간에 고대에서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수난과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워서 가물거리는 기억이 떠올라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우리 민족사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해 12월에 광화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집결지에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니 설레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여 많은 이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거리 행진에 나서니 나도 모르게 고조된 기분으로 행렬에 앞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자리도 바꾸고 피켓도 들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회에 참가한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백악관에 보낼 "한반도 전쟁 반대 10만인 청원 서명 운동"의 거리 서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회담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발언을 보면서 오랜만에 남북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는 평화 통일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평화 통일~

이때 나도 힘을 보태면 가까운 미래에 평화통일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사천왕사지 통일 정진하는 모습

경주 사천왕사지 평화 통일 기도 참여를 권유 받았을 때 해운대에서 거리가 멀고, 기도 시간이 이르기도 했지만 평소 마음을 먹고 있던 지라 흔쾌히 참석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를 마시며 텅 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통일로 가는 전사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문두루비법으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경주 사천왕사지.

평화 통일 참회기도 발원문 낭독, 300배 정진, 관음 정근, 기차 기적소리, 새소리, 자연의 냄새와 어우러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진) 사천왕사지 통일 정진하는 모습

나누기 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니 함께한 참여자 한 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오세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무더운 여름 날씨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한결같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진) 글쓴이 전진수 활동가

'지구야 좀 쉬어 가자' 코로나 사태로 현지 참석 제한 위기가 있었지만, 함께 하는 분들 덕분에 통일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지 통일기도를 맡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심부름 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닦아 놓은 길을 잘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사천왕사지, 꽃봉오리처럼

화상 회의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꾸준한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서로 손을 잡고 경주 사천왕사에서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로 끝맺음합니다.



(사진) 사천왕사지 단체사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평화통일 만세 만세

